

단석산업 LIB Recycling 공장 착공 오늘도 내일도 빛날 여러분 응원합니다

정밀화학 개발업체 90억원 투자 연간 약 5천톤 규모 추출

군산시는 지난 12일 글로벌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정밀화학 개발업체인 (주)단석산업의 LIB(Lithium-Ion Battery) Recycling 군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단석산업 한승욱 대표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해 기념 커팅 및 시삽 행사를 가졌다. 이번 LIB Recycling 공장은 (주)단석산업 재생연 생산 거점인 군산공장에

약 90억원을 투자, 올해 말까지 폐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연간 약 5천톤 규모의 활물질(Black Mass)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단석산업의 금속소재사업은 폐배터리(납축전지)를 리사이클링해 재생연으로 생산 후 배터리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최근 전기가 증가 및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LIB)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LIB Recycling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친환경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민 군산시장은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제품과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주)단석산업의 LIB Recycling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투자가 아차전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주)단석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각 학교 자체적 수여 예정

군산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7개 분야에서 우수한 청소년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청소년상'은 관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장, 50인 이상의 사업장 대표자(근로 부문)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으며 시상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봉사부문은 연탄 봉사, 새만금 마라톤대회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 평소 타의 모범이 된 중앙중학교 과학성 군이, 효행부문은 몸이 불편한 조모를 살뜰히 챙기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깨끗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일중학교 서문경 군이, 근로 부문은 강한 자립 의지로 회사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주)에센테크 김민수 씨에게 수여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문화예술 부문은 초등학생 때부터 무용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한국무용에서의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군산고등학교 김유준 군이, 체육부문은 배구부 주장으로 학교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한 한들고등학교 박민재 군이, 과학기술 부문은 청소년수련관 KGYC동아리 부회장으로 로보코딩 관련 뛰어난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군산남중학교 손주원 군이, 참여부문은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환경동아리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한 영광중의 강예은 양이 선정됐다. 김우민 군산시장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노력하여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귀감이 되어 대견하다"며 "지속 가능한 군산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에 힘찬 응원으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 통



유재구 익산시의원 다이로움 택시 의견 청취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동산동, 영등동)은 지난 11일 다이로움 택시 상 황실을 방문해 시민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다이로움 택시 앱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더욱 질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일방적인 배차 취소 등 시민들이 택시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대해 전달하고 택시조합의 예로사항도 성실하게 청취하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이로움 택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익산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다이로움 택시 기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자본센터, 해외 봉사단 발대식 개최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global friends' 해외봉사단이 지난 1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global friends' 해외봉사단(단장 김선교)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봉사단은 현지 교육시설에 물품 후원과 환경개선 봉사를 하며, 마을주민 위생교육과 초·중·고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단원들이 지난 4월부터 격주 토요일 사전모임을 가지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교육 시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센터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나눔과 배려라는 봉사의 의미를 나누고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창업지원 청년기업... 신규 고용창출 '성공'

청년기업 보부상바이오팜 공장증설로 청년일자리 30개 창출

익산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신규 청년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있다.

(주)보부상바이오팜(대표 백하현)은 지난 11일 익산시 월성동에 동지를 열고 3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이번 공장증설을 통해 연 150억 매출을 도모하고, 300여명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주)보부상바이오팜은 익산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민관협력 위드로컬사업 2기 수혜기업이다. 시는 민관협력 위드로컬 사업으로

익산지역 청년들의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연계 창업을 위해 시제품 개발과 창업 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주)보부상바이오팜은 이를 기반으로 건강식품 제조, 유통 물류, 디자인, 교육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제조해 로컬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공헌하길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익산청년시청 이보욱 청년시장, (주)기담(대표이사 이경신), (주)치얼업코리아(대표이사 신경석), (유)별곡(대표이사 한정민) 등 지

역 청년기업가들이 참여해 공장증설 및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보욱 익산청년시장은 "(주)보부상바이오팜은 청년창업가로서 성공스토리를 써왔다"며 "앞으로 청년창업이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SK E&S 전북에너지 서비스(대표 박경식)와 민관협력으로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만 18세~30세의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팀을 선발해 청년창업가 맞춤형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물가안정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

익산시는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다.

대상은 익산시 소재의 지역업체, 개인사업자로 소매 단위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며,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카센터, 세차장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이력이 있는 업소, 체납업소, 영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법인이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착한가격의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불가하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간판 및 포탈 부착, 예산 범위 내 희망 물품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 시 휴

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지정업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팔봉동 임시청사(무양로 1397) 서문 소상공인과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dovetail@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과(☎859-5236)로 문의하거나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12개소, 이·미용업 4개소, 세탁업 1개소, 목욕업 1개소로 총 1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10년만에 전국노래자랑 군산을 찾아온다... 6월 KBS 군산시편 녹화

10년만에 군산에서 방송인 김신영의 사회로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군산시는 KBS 전국노래자랑(군산시 편)을 오는 6월 13일 오후 3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심은 오는 6월 11일 오후 1시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군산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학생 등으로 타 지역도 가능하지만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군산시

민을 우선으로 접수받는다. 단 기성가수(가수협회 등록/음원발매)는 접수가 불가하다.

접수인원은 선착순 300명 내외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11일 1, 2차 예심을 통해 1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본선녹화는 6월 13일 오후 3시부터 월명종합경기장(우천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초대기수로는 진성, 김용민, 김주경, 신승태, 트윈걸스가 출연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번 행사를 위해 시는 9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행사가 안전한 관리 속에 운영 될 수 있도록 근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년만에 전국노래자랑이 군산을 찾아오며 시민여러분이 마음껏 흥과 끼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군산 시민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년만에 군산을 찾는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2013년 4월 30일 녹화된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